

# 동상





## 연어야 안녕!



이다솜 | 울산 문현초등학교 2학년

저는 연어를 제일 좋아합니다. 붉은 색의 연어 살은 아주 먹음직스럽고 향긋해서 초장에 찍어 먹으면 그 맛이 일품입니다. 그래서 아빠는 자주 연어를 사다가 요리를 해주십니다. 제가 사는 울산에는 태화강이 있습니다. 어느 날 가족과 함께 태화강을 걷고 있는데 물고기가 막 튀어 오르면 이곳저곳에서 물고기들이 놀고 있었습니다.

“엄마, 물고기 좀 보세요. 물고기가 엄청 많아요!” “저 물고기가 다솜이가 좋아하는 연어란다.” “정말요?” 저는 연어가 우리 가까이에 살아가고 있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엄마는 울산이 산업도시라 이 태화강도 오염이 엄청 심해서 죽은 강이었다고 했습니다. 태화강은 울산 중심에서 흐르고 있는 강인데 물도 검은색, 악취도 엄청 심했다고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려면 환경이 함께 살아야 된다는 건 기본 상식입니다. 그래서 울산에서는 태화강 살리기 운동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물을 정수하고 쓰레기를 줍고 무엇보다 정수

시설에 엄청난 비용을 들여 태화강이 점점 깨끗하게 살아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물이 깨끗하니 물고기가 다시 살아나고 무엇보다 재첩이라는 조그마한 민물조개를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조금 신기하기도 하고, 기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연어는 왜 여기 있는 거예요?” 울산은 태화강을 살리기 위해 노력한 결과 1급수에만 살 수 있는 연어, 치어를 놓아주기 캠페인을 하였다고 합니다. 연어는 태어난 곳을 다시 찾아와 준다는 것을 책으로 읽었기 때문에 다시 강으로 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을 이맘때가 되면 연어가 알을 낳기 위해 태화강을 찾아온다고 합니다. 저는 엄마가 해주신 말씀이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연어를 먹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엄청 고민했습니다. “그럼 이제 연어를 못 먹겠네요? 너무 불쌍해요, 힘들게 왔는데.” “하하하하, 우리가 먹는 연어는 저 멀리 바다에서 잡아오는 거라 괜찮아.” “정말요?” 전 연어가 고맙기도 하고 깨끗해진 태화강에게도 고마운 마음이었습니다. 엄마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곳 울산에는 태화강도 바다도 다 있단다. 함께 있기에 강도 바다도 우리의 국토란다. 우리가 사는 그 국토를 우리가 보호하고 잘 가꾸어 우리가 지켜야 한단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국토사랑 글짓기를 하려고 마음먹은 것도 우리의 국토는 우리가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산업도시 울산이 생태도시 울산이 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우리가 지켜야 할 국토이기 때문 아닐까요? 전 생태도시 울산에 살고 있습니다.